

# '무주반딧불축제' 친환경 실천 주도

## 자연보호 가치 공유 위한 '반디 폐품&재활용' 경진대회 열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5일 무주군 등나무운동장에서는 '반디 폐품&재활용' 경진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생활 속에 범람하고 있는 쓰레기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폐품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자연보호의 가치를 상기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지역주민들과 방문객 등 1백여 명(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이 '폐품 재활용 모형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와 '반딧불 축제 마트'에 참가하며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부터 당일까지 축제장에 모아진 페트병을 비롯해 종이박스, 나무막대 등의 주재료와 과학키트를 접목해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었으며 참가자들 간에 경주도 즐기며 재미와 의미를 함께 챙겼다.

또 사용하지 않고 집에 쌓여있던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나와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구입,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마트도 인기를 모았다.

한편, 지역축제로는 처음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해 생태환경축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 실천을 주도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의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5일 무주군 등나무운동장에서는 '반디 폐품&재활용' 경진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9일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에코 파노라마(ECO PANORAMA)'도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즐기는 친환경 실천 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워킹 인(IN) 무주(하루 3천 보 걷기)'를 비롯해 '반딧불축제 참여', '반디 서약(친환경 활동 동참)', '플로킹(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재사용(장바구니, 텀블러 및 대화용기 사용 부스 이용)', '에코 퀴즈(친환경 실천 관련 OX 퀴즈)', '활동사진(무주반딧불축제 행복한 순간)', '이벤트 공유(SNS 공유)' 등을 인증하면 된다.

축제장도 친환경 존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풍루 수목등, 야광 조명물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발전)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그늘막(최북미술관·예체문화관 광장)과 먹거리 부스에서 쓰는 앞치마 등도 지역 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일부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와인바(예체문화관 주차장)를 비롯해 수제맥주와 EDM 파티존(최북미술관 광장)에는 폐 건설택재로 만든 테이블을 설치했다.

또 축제장 곳곳에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행사장 밖에서 가지고 온 플라스틱 음료수병 등의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조형물과 포토존으로도 활용하는 등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 4일 백운농협 성수지점 멜론선별장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와 농협 임직원, 수출업체, 생산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멜론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 진안 멜론, 홍콩 첫 수출 선적식

### 2.4톤 수출 기념 열려

진안군은 지난 4일 백운농협 성수지점 멜론선별장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와 농협 임직원, 수출업체, 생산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멜론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은 진안 멜론 2.4톤을 홍콩으로 수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진안에서 멜론이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에 나선 멜론은 백운농협이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구성된 멜론공선회(회장 전병호)가 재배한 것들이다.

진안 멜론은 아침, 저녁 기온차가 높은 고랭지 기후의 특성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품질 높은 농산물이다.

멜론공선회는 올해 재배면적 4ha에서 멜론 64톤을 생산해 2억6,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군에서 신 소득작목 멜론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멜론 유인물, 종묘 등 1억7,000만원을 투입해 멜론 하우스 4ha를 지원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유통 관련 장비 지원을 비롯해 내년도 새해농업인 교육과 품목별 교육에 멜론 교육을 추가하는 등 고품질의 멜론 생산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백운농협 김연태 조합장은 "이번 수출은 국내에서 덜 소비되는 8kg 5~6수 제품에 중점을 뒀다"며 "멜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판로 개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수출에 나선 수 있도록 고품질 멜론을 생산해주시는 농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멜론이 판매에서 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2학기 반디장학생 모집합니다"

###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27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황인홍 군수)이 2학기 반디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를 방문하거나 (재)무주군교육발

전장학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무주읍 한풍루로 326-26, 무주군평생교육원)하면 된다.

올해는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국가대표장학금'이 새로 생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준일(9월

2일)에 국가대표 선수거나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되어 있다는 증명을 붙여 신청하면 1백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1인당 1백만 원씩을 지급하는 '반디장학금'은 1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들도 2학기에 다시 신청해야만 선발 대상이 된다. 북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대표장학금'과 '반디장학금' 모두 9월 2일 기준 보호자 중 1인과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모두 무주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관광협의회, 관광 발전 위한 행보 속도 낸다

(사)진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이재동)는 민간차원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광협력의 수요를 높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정착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회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및 소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먼저, 야간 체류형 관광행사의 정례화를 기획하고 분기별 행사를 계획하며, 그 첫 번째로 오는 9월 21일 마이산북부 관광단지 내에서 '별빛별름 캠프

프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한 지역 관광 일자리 창출에도 시동을 걸었다.

또한 '진안군 대표 먹거리 발굴 사업'은 '더보코리아' (대표 백종원)와 계약을 맺고 대표 간식 1종, 일품요리 1종을 개발하고 마이산 북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도 함께 진행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장수군은 5일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가 레드푸드 페스티벌(제18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뜻깊은 행사를 통해 오래간만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주민들도 노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최훈식 군수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축제의 시작을 '노인의 날' 행사와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가 주민들 모두가 어울리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다"며 "국가와 사회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